

주안에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8
Jul. 2019
Vol.7 No.7

- 임직예배 / 임직자 소감
- 교육부 VBS
- 중고등부 수련회
- 칼럼 / 간증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f](#) [ig](#)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순결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창립 6주년 감사예배가 지난 7월 28일 밸리채플에서 열렸다.

■ 창립 6주년 감사예배

주안에교회 창립 6주년 감사예배가 7월 28일 오전 11시 밸리채플에서 열렸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꿈을 가지고 세워진 주안에교회가 창립 6주년을 맞아 가진 예배는 6살 나이에 걸맞게 진행된 모든 순서가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그리고 EM과 청년부의 퍼포먼스는 귀엽고 힘차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연합성가대의 찬양은 웅장하고 은혜가 넘쳤다.

2018-2019 High lights 영상에서는 지난 1년간의 주요 활동에서 모든 상황 속에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천국보화 같은 영적 교훈들을 볼 수 있었다. 우리 계획이 때문 실패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테바(tebah) 임을 기억할 때 평안을 느낄 수 있었다. <3면에 계속>

| 나형철 기자 |



■ 임직예배



안수집사 및 권사 84명을 새롭게 세우는 임직예배에서 임직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주여, 사명의 길을 달려가게 하소서’

7월 21일 주일 오후 5시 주안예교회 벨리체플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수여하는 안수집사와 시무권사 임직식이 있었다. 약 500여명의 교인과 가족, 친지 들이 함께한 가운데 25명의 안수집사와 59명의 권사 임직자들은 지금까지의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좋은 본이 되는, 주님나라의 일꾼으로 거듭나기를 서약하며 엄숙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일터등

의 관계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명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내도록 엄격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온 임직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일꾼으로, 발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다짐처럼 이끌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기억해주시는 한분 한분이 되시기를 기도 드린다. 임직식이 끝나고 분수대앞 야외 광장에서 MP채플 권사회에서 몇일동안 정성껏 준

비해서 마련한, 맛과 멋이 조화를 이룬 저녁식사가 야외콘서트와 함께 이어졌다. 앞서 임직을 받은 시무권사들이 새로이 임직을 받는 분들과, 참가하신 모든 손님들께 음식 대접은 물론이고 섬김의 기쁨까지 나누어드린 너무나 아름답고 값진 시간이었다. 주안예교회는 보이지 않는 섬김의 자리들을 지키며 그렇게 작은 걸음을 재촉해왔으며, 이제는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기까지 이날 임직 받으신 임직자들의 총성과 열정을 기대해본다. | 오희경 기자 |



"둘째딸 15개월 선교사역 잘 끝내 감사"

황화진 집사(벨리) 사랑하는 딸 에이미가 중동국가에서 15개월동안 학생선교사 사역을 잘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터키에서 사우디에 도착하는 비행기가 늦어져서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못타고 하루를 혼자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라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도했는데, 비즈니스석을 타고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왔다는 딸의 말을 들으며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에이미가 남은 2년동안의 학기를 잘 마치고 주님의 제자로 잘 자라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학교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 너무나 기뻐하는 딸을 보며 넘 예쁘게 잘자라게 키워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와 후원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 창립6주년 감사예배



은혜와 축복 감사의 6년 하나님께 영광을

〈1면서 계속〉 또 우리교회의 목회철학이 배운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 이 땅에 도래할 그 영원한 왕국을 꿈꾸는 교회, 다음 세대의 영성과 지성을 모두 양육하는 교회임을 알았고 최혁 담임 목사님께서 '주안에교회가 남기려고 하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 주안에교회의 존재 이유와 추구해야될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고용흠 안수집사, 고평하나 권사(MP) 지난 7월 29일에 세 번째 손자 Miles 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고용흠 집사님은 따님만 세 명을 비롯한 손주들은 세명 모두 손자들이라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고 너스레를 떠신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 Miles 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기도한다.



여제니스, 배혜랑, 조이메기 권사(MP) 세 친자매가 한 날 모두 권사 임직을 받고 친구들의 축하꽃다발을 받고 있다. 앞으로 세 분이 교회에서 필요한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리라 믿는다.

■ 임직자 소감



갈대상자 같은 나를 이끌어 주의 일꾼으로

양태섭 안수집사

저는 어두움의 자녀로 죄가운데서 이 땅의 풍요를 목적삼아 이 땅을 살아가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것들을 우상으로 세우고, 그것들에 절하며 어두운 인생을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통하여 용서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 거룩한 계보 안으로 방향을 틀어, 이 땅의 풍요가 목적이 아닌 하늘 나라의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생의 목적으로 바꾸어주시고, 스스로는 움직이지도 방향도 정할 수 없는 갈대상자와 같은 저를 이끌어 주안에 교회의 한 지체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경에 이름같이 단정하고 일구어 언하지 않고 술에 인박이지 않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집사로 성장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 권사 권사로 피택 될때는 '내가 자격(?)이 있는가?'로 두려웠습니다. 임직예배가 다가오면서 더욱 고민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임직 예배중 모든 답을 얻게 되어 기쁩니다. 선배님들의 권면의 말씀들이 저를 주안에서 자유하게 해주셨고 목사님 말씀중에 '젓난 암소 두마리를 끌어 내시고 안 내자 없이도 인도해주신 하나님'이 저에게 계심으로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먹은 생각이 '직분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기로 했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임명받고 죽도록 충성하자'이었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잘 할 것을 교회앞에 약속 합니다.



강은숙 권사 권사라는 직분이 제게는 아직 아니라는 생각에 하지 않겠다고 목사님을 찾아 뵈 후, 순종하며 받아드렸지만 여전히 마음의 갈등은 있었습니다. 교육기간동안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 저를 변화시키시고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셨습니다. 때론 피택이라는 그 글자에 아직은 아니니까 라는 조금은 가벼운 생각으로 있었는데 임직식에서 권사의 직분을 받는 순간 그 직분의 무게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직분이 봉사와 헌신으로 가며 리더로서 모든 일에 본보기가 되어야 함을 알기에, 앞으로 선배 권사님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 임직자 소감



순종하며 섬기는 삶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규남 안수집사 주일에 교회가기 정말 힘들었고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지 않았던게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세상이 좋았고 그렇게 살면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찾아 오셨다. 최혁 목사님의 CD 설교는 나를 뒤집어 놓았고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말씀에만 취했을뿐 실천은 없었다. 얼마 안가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봉사와 섬김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주차봉사가 시작이었고 기쁨이 있었다. 그러나, 1년 정도되어 스스로 이만하면 됐어 하며 봉사를 내려놓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섬김을 원하셨고 기막힌 타이밍에 교육부에 세워주셨다. 그렇게 3년이 지나며



국장의 자리에 세워주셨고 지금은 안수집사로 불러주셨다. 이 큰 죄인을 쓰시겠다 하신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엔 순종만이 유일한 옳은 대답임을 이제 알고 있다.

이제니스 권사 권사직분을 받기 전, 후에 많은 분들에게 축하인사를 받았다. 영어권 친구들은 "promotion" 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축하해 주는데 내겐 이 단어가 엄청 어색하게 다가왔다. 올라가는 직분일수록 더 낮아져야 하는데... 나는 이 직분이 개인의 능력이나 지식따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의 모습 그대로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계획임을 믿는다. 나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정 권사 직분자의 자리가 왜 중요하고,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를 교육을 받는 동안에 더욱 실감하게 되었기에.. 권사임 직식 직전까지도 많은 부담가지고, 임직식에 참여하기 위해 교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저의 무거운 마음이 보기 안쓰러우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찾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가죽옷의 의미가 떠올랐고, 주의 의를 덮입힘 받아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이 머리 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 권사라는 직분의 옷을 입혀주실

과 동시에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정말로 주어졌음을 잊지말라는 소망 가득한 말씀이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임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음같지않게 실수많은 나의 미흡한 실체를 알기에 매순간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을 놓지않고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혜숙 권사 미련하고 연약하며 부족함 투성이인 저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모든 삶을 주관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교만하고 세상 욕심과 나의 자아로 충만한 저를 고쳐 가시며,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의 일을 동역하게 하시고 자 권사직분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 충만함과 은사를 늘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따라 담임목사님과 당회, 교회 리더십을 존중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주신 건강, 능력,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안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며, 주안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섬기겠습니다.

■ 임직자 소감

'grow with this church that I call home'

Since the very beginning of ICCC, my family and I were here. We experienced all the growing pains that go along with a new church. My time here as any english-only speaking member at this church has also been very challenging. There have been times where there were no translation devices, no EM (english ministry), or even no worship (for me)! Those times, I still received the Word by the diligence of others who would translate the sermon on a laptop sitting next to me in the sanctuary.

Being an American in a Korean church, I could have felt like a stranger in a foreign land, but I didn't. I was always welcomed and treated like family. With that love, I have grown spiritually much more than I could have imagined. By God's grace, I have been selected to become an ordained deacon at ICCC. This training has been also very challenging, and to be honest, I wanted to quit a few times. But I remembered that my church family never gave up on my salvation. That encouragement helped me during those times of self-doubt.

God's plan for me is still a mystery, but I am on this journey for a reason. As an ordained deacon at ICCC, I will do my best to serve this church as well as it has served me. Similarly, my relationship with the Lord is not complete, but a work in progress. It is something that I will continue to nurture and grow with this church that I call home.



크리스 메기 안수집사(MP)

저와 저희 가족은 주안예교회 창립 때부터 있습니다. 새로 개척한 교회가 성장하며 겪는 성장통에도 감사하였습니다. 통역 장비들이 없었을 때도 있었고, English Ministry(EM) 나 혹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랐던 시절에는 저를 위해 제 옆에 앉아 노트북으로 설교 말씀을 동시로 번역을 해준 분들의 성실하신 노력으로 인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인교회에 속해있는 미국인으로서 외국 나라에 있는 타인과 같이 느껴졌을 수 있지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었습니다. 항상 초대받은 느낌, 그리고 가족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며 저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저는 영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주안예교회 안수집사로 피택되었습니다. 훈련과정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솔직히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몇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가족은 저의 구원을 한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는걸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미스터리이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어 이 여정을 가고 있게 하심을 압니다. 제가 섬김을 받은만큼 저 또한 주안예교회 안수집사로서 교회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또한 완전하지 않지만 향상되어가는 중입니다. 저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가꾸고 성장시켜 갈 것입니다.

'extreme character begin to take shape'

Although I have been a Christian for over 35 years, I must admit this is the first time that I am feeling intention in being a Christian. For the most part, the belief and the spiritual aspect of my life were spent wishing and watching from the sidelines. I felt I was part of the deal, the package, coming along for the show and walking the journey with the church and rest of the community. I was picking my shots as a spectator. Then the training started.



함승민 안수집사(MP)

I saw people around me. I began to see the church move as a passion project. I living, breathing thing that is here to do one thing and one thing only, glorify the Lord's name with true intentions. I saw people of character, a different breed of human being. I saw the church choosing to train at a different level and take risks to achieve a common goal. I began to see and realize there are different levels to this game. I began to take balance in the approach. I saw my extreme character begin to take shape and started to see new levels to be attained. There is an art to this.

박종호 장로 찬양과 간증

지난 7월 26일에 벨리체플에서는 특별한 금요 영성 예배가 있었다. 찬양사역으로 섬기시는 박종호 장로 겸, 선교사께서 간증과 찬양으로 은혜 나눔 콘서트가 드러졌다 본 교회 찬양팀의 The Name(그 이름) 으로 예배가 시작되었고 이어진 박종호 장로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를 첫 곡으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등 장로님을 통하여서 세상에 탄생 되었던 CCM 음악들이 여 름밤을 수놓았다. | 임용자 기자 |



■ 7월 20일(토) VBS

"사도바울을 따라 전도여행 다녀왔어요"



7월 20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콜타임을 시작으로 9시가 가까워 오자 삼삼오오 부모님들과 참가 아이들, 스탭들과 봉사자들로 금새 빨리 교육관이 가득 채워졌다. 올해는 특히, MP와 빨리 연합으로 하루만 하게 되었지만 어느 해보다 열기가 뜨거웠다.

Pre-K(만4세)~5학년을 대상으로 한 VBS에는 선생님들과 스탭들, 유스학생들과 부모님, 자원봉사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었다.

2019년 VBS 타이틀 처럼 주제를 따라 바울의 전도여행 경로를 설명한 후 각 스테이션을

돌 때에, 체험하는 아이들 얼굴이 흥미진진함과 더불어 진지함이 가득하다. 스테이션은 총 9개로, 바울과 실라가 간행던 감옥체험 스테이션 복음을 직접 전해보는 복음 전하는 스테이션, 말씀을 전해보는 회당스테이션도 있었다. 그 외에도, 아테네를 배경으로 꾸며놓은 장터에서 옷도 입어보고, 목걸이도 만들어 보고, 찰흙으로 옛날 토기를 만들어 보기도 했다. 또 그리스 식당에서는 Pita Chip(피타칩)과 Feta치즈가 들어간 그리스 샐러드를 먹어보기도 하며, 친구들과 의미있는 체험을 하였다.

이번 VBS를 마치며 두분 전도사님(니콜&요셉)께서는 바울이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바울의 뒤를 이어 우리도 편견없이 안 믿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다. 단 하루였지만, 아이들이 VBS라는 귀한 시간을 통해 자신이 '테마' 입을 깨닫고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종(후페르테스)으로 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전도했던 '사도바울'을 닮아가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 이성은 기자 |



■ ICY 중고등부 수련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 다짐

2019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 총 3박 4일동안 진행된 ICY 여름 수련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상이었습니다.

여름수련회를 위하여 7월 한 달동안 ICY 전도사님들과 학생리더들이 매주 토요일 새벽에 모여 합심기도를 올려드렸는데요,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는 특별히 많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Royal Wedding'이었습니다- 세상과 항상 접촉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그들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하게된 주제입니다. 분별력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시대에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완벽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더라도,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항상 신랑되시는 주님 안에서 평온함을 찾고 답을 찾을 수 있는 ICY 학생들이 되기를 모든 리더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진심어린 기도들을 들으셨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교회에 잘 나오지 않던 학생들이 고민 끝, 수련회 당일 마음을 바꿔 수련회를 오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잃어버린 그 어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학생들이 찬양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반복되는 영적 실패 속에 낙심했던 학생들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 매일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가지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두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사람의 열심도 아니고, 사람의 수고도 아닌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2019 여름 수련회는 끝났지만 아이들은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한없는 사랑을, 그 분의 자비를, 그리고 그 분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써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써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곧 여호와 라파로 우리를 만나주셨고 또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여 하나님의 깃발이 세워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여호와 낮시의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이러한 복된 수련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송축합니다. | 김민재 전도사 |



Overwhelmed by God's Grace

Everyone knows that four days without internet is basically going into solitary confinement for teenagers. That's one of the main reasons why I was very reluctant to go to this summer camp. Furthermore, the anxiety of school starting the following week, and having so much to do in preparation for it, distracted me to even think about camp.

I've been a follower of Christ from what I can remember, so naturally, I've had my share with participating in church camps and activities. As I grew older, I noticed how expensive and frivolous these camps were. For a low-income family, a \$240 fee isn't cheap. So I questioned if the trip was even worthwhile to attend. My parents, however, convinced me to give camp

another chance and explained how it would be different as I pondered what was barricading my relationship with God.

During Pastor Sam Shin's sermon about fear, I realized how terrified I was of what other people thought of me, and what a huge effect on my religious beliefs, academics, and social life it was. As each day passed, God revealed how selfish I was and I was overwhelmed by His Grace. This was a pivotal moment in my spiritual walk; I learned how easy it was to lose my faith to worldly temptations. I found my way back home; I'm re-dedicating my life to Christ.



Joshua Cho(MP)

■ 목장소개/ 벨리 11목장

배려와 섬김의 오손도손 5가족

저희 11목장은 5가정이 모여 목장예배를 그리고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엔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양윤석 목사님, 우리들의 정신적 지주이시고 건강식으로 매주마다 섬겨주시는 송정숙 권사님, 분위기 메이커 이시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시는 양승우 집사님, 아이 셋을 양육하느라 힘든 하루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양집사님 아내 김형선 집사님, 김형선 집사님도 새침하게 생겼지만 알고보면 허당기가 많은 유쾌한 집사님입니다.

말걸면 안될 것 같은 포스가 흘러 넘치시는 이소의 집사님, 그러나 누구보다도 여리고 착한 심성을 지니고 계시고, 먼저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집사님, 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항상봉사의 자리에 첫번째로 달려오시는 조민철 집사님, 고만

고만한 아이 셋을 양육하고 계시는 조집사님 아내 이영인 집사님, 착하고 여린 심성을 지니고 계시는 너무나 예쁜 막내 집사님...

이런 저희 11목장이 7월 둘째 주에 식당봉사를 위해 모였습니다. 메뉴는 콩나물밥!!! 토요일 아침 9시에 모여 재료준비하고 주일날 1부예배를 드리고 식당으로 go go~ 어느 한분도 빠지지 않으시고 전원 참여 속에 웃음이 떠나가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봉사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어느 한분도 힘들다고 내색 한번 안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봉사하시는 모습이 저희 부부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우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목장 식구들을 만나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목장 식구들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늘의 은총, 은혜, 축복이 가득 가득 흘러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희 목자부부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기도해주시는 목장식구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이선민 집사 |

■ 주안에일꾼/ 김영기 장로(MP)

교회 구석 구석 말끔하게

MP채플에는 교회를 내집처럼 가꾸시며 구석구석을 돌보시기에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움직이시는 김영기 장로님이 계신다. 거의 매일 새벽예배 후에 상태를 보면서 잔디깎기와 잡초제거 제초제 뿌리기 bush trim 등은 기본이고 좀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스프링클러 교체나 수선, 사다리 놓고 큰 나뭇가지 자르기 까지 장로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



젊은이들도 힘에 부치는, 그 넓은 파킹장의 나뭇잎을 모두 쓸어내시는 것도 모자라서, 파킹장 전체를 바람부는 기계로 날려 보내면서, 또 사이사이로 빠져나온 잡초를 일일이 다 제거하신다.

1년에 한번 시정부에서 기준하는 가드닝 기준에 맞게 파킹장 뒤 비탈진 언덕에 크게자란 풀들을 평지 깎는 것보다 3-4 배 더 힘들게 다 자르셔서 우리가 시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적도 받지 않도록 온몸으로 헌신하신 김영기 장로님은 이 일 외에도 교회가 깨끗하게 되는 일에 항상 앞장서시고, 성도의 유익을 위해 계획되어지는 일에 말없이 행하셔서 모든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잔잔하게 끼치는 분이시다.

섬김과 헌신의 분이 되시는 김영기 장로님의 에너지가 MP채플 성도님들 모두에게 전달되어서 함께함으로 얻을수 있는 효율과 기쁨의 시너지를 창출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김영기 장로님의 외로이 뿌리셨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해본다.

| 오희경 기자 |

■ Movie Review

"About Time"

Every now and then, a film comes along and changes the way I think about life. "About Time" is that kind of movie.

This pleasantly unique film isn't just a love story, it makes you appreciate life a whole lot more. Imagine you can travel back in time and change any event(s) in your past, will you be happy? The film reinforces my faith in God's providence,



grace, and wisdom. After all, a man's choices will always be flawed no matter how many times we can "re-live" our lives. So, watch it only with your spouse or significant other. After that, treasure every moment you have on earth with all your loved ones.

Give your parents big, long hugs. Tell your children that they are best thing that ever happened in your life. Fall in love with your spouse like you did on your wedding. Give your best to God as if today is your last. Remember God gives us only one life for a reason! Carpe Diem!

| Simon Cho 기자 |

■ 모국여행기

잊을 수 없는 맛, 여수해장국

2년만에 방문한 내 고향 한국의 모습이 참으로 새로웠던 건 큰 땅 미국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었던 문화의 변화를 작은 땅 한국에서는 바로바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그 중에 하나가 음식문화였다.

2년전에는 그리 흔하게 보이지 않았던 타코와 월남국수 식당을 자주보았고 거리음식 또한 너무나도 다양해져 외국인의 눈길을 끌고도 남았다. 이번 한국여행은 각 지역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음식이 여행의 즐거움을 주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에 남았던 맛집은 사촌언니들과 떠났던 2박3일의 여행중 여수에서 들렀던 해장국 전문 식당이었다.

여행 이틀째 저녁, 여수에 늦게 도착하여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이 생각나 여수의 명소인 포장마차거리를 다 돌아봐도 오뎅이나 우동같은 따뜻한 국물은 찾을 수가 없었던게 너무 아쉬웠다.



다음 날 아침, 지난 밤에 못 먹었던 따뜻한 국물을 찾아 나섰다.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 앞에 자그마한 '이순신 해장국' 식당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급히 들어갔다. 해장국 식당치고는 깔끔한 분위기가 맘에 들었고 무엇보다도 주인 아주머니의 번쩍이는 양해와 결심의 글이 우리 마음속에 쏙 들어와 소개해본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저희 가게 규모가 작은 관계로 음식을 조리할 가스불이 넉넉치 못합니다. 예쁜 아량으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에 이어 벽에 붙어있는 메뉴판 밑에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아줌마가 되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주인 아주머니의 마음이 담긴 글을 보면서 음식 맛은 어떨까했는데 역시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엄마밥상과 다를바 없는 구미 당기는 상차림이었다. 음식 좀 하는 세 여자의 입맛을 사로잡은 이순신 해장국 식당의 반찬은 그야말로 구색맞춤에 손색이 없었고 맛 또한 최고였다. 맛있다는 칭찬으로 시작된 주인아주머니와의 대화는 훈훈한 여수시민의 인심을 느끼게 했고 이어 커피대접까지 받으며 정말 보기도픈 인연을 간직하고 헤어지는 아쉬움으로 식당을 나왔다.

여수 '이순신 해장국' 식당은 음식을 파는 것만이 목적이 아닌 그냥 지나칠 인연이라도 마음을 다 해 줌으로 꼭다시 찾고싶은 맛집중에 최고 맛집이었다. 여수가 고향이신 담임목사님은 물론 앞으로 여수여행을 하는 모든 분들께 이순신 해장국 식당을 강력히 추천하며 선반 위에 성경책이 놓여진 '이순신 해장국'이며, 영원하라! | 박경숙 기자 |

■ 주안에생명#3

막연했던 천사 · 사탄의 실체 확실히



최일 집사(벨리)

교회, 천사, 사탄/마귀, 귀신 그리고 성령... 이러한 단어들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지 20년이 넘는 저로서는 결코 생소한 단어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금요일 주안에 생명에서 "교회" 라는 제목으로 첫 강의를 시작하였을 때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개의 강의를 다 듣고 난 후에 성령님께서서는 나의 믿음 생활에 보충되어야 할 것들을 알뜰히 챙겨주셨습니다. 첫째는 교회에 기능과 존재 목적이란 소제목 강의를 통해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섬김과 봉사가 부족했던 저에게 목사님께서 성경말씀을 짚어 주시며 도전하게 하셨습니다. 둘째는, 천사는 구약에서나 존재했고 막연히 하늘에 떠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과 성도를 위해 사역하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구체적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셋째, 사탄 마귀도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모방하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저의 모든 생각이나 행동들이 마귀의 역사의 증상이라는 것,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마귀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과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놀개라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성령의 사역의 하나로 제가 구원받음과 그 성령이 항상 내 안에 내주하시는다는 것과 꾸준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재확인 일이었습니다. "아는만큼 보인다" 라는 말을 생각하며 이 네가지를 공부한 후에 저의 깨달음이 앞으로의 나의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가이드가 되리라 믿습니다.

■ 제11기 주안에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된 성경통독



이경숙 집사(벨리)

주안에말씀 통독 광고를 몇주간 보게되면서 한 번 도전해볼까 하는 마음이 자주 들었습니다. 또 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가지 부정적인 생각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것부터 시작하면서 새로운 교회 생활에 들어가보는게 어떨까? 교회 마당을 걸으며 다짐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읽어내려가며 그동안 여러번 읽은 말씀인데도 아! 이런 구절이 성경 속에 있었나 하는 말씀도 많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됩니다. 민수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할 일과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에게는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고비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 학습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말을 듣지않는 완악한 백성이기에, 또 일러주시고, 반복하시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제가 이 짧은 기간에 성숙한 자가 되고, 눈에 보이는 큰 열매는 안보일지라도, 성경을 일독했다는 의미가 매우 큼니다. 왜냐하면, 오늘 통독을 마치며 성경 2독을 도전할 생각과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 크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 가운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벧후 3:18)"는 말씀을 붙잡고 크고 충만하신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 여름 휴가철에는 이곳으로/ 마운틴 레이니어 국립공원



만년설 · 빙하폭포 · 산림욕... 한여름의 파라다이스

미국 본토에서 가장 끝 북서쪽에 위치한 워싱턴 주에 만년설을 지니고 있고 웅장한 빙하의 세계를 품고 있는 마운틴 레이니어 이야기 여행속에서 만나보기로 한다.

LA를 출발하여 2시간 30분 정도를 비행하면 씨애틀에 도착하게 된다. 이곳에서 동남쪽 방향에 멀리서도 그 웅장한 자태로 우뚝 솟아 있는 레이니어의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시애틀에서 자동차로 2시간 남짓 이동하면 레이니어 국립공원에 도달하게 되는데, 원래 토착 인디언의 이름으로 ‘타호마-위대한 산’이라 불리워졌다가 후에 레이니어로 변경되었고 14411피트의 높이를 자랑하고 있다. 휴화산으로서 초기 산 정상부의 상당한 높이가 화산폭발과 함께 유실되었다. 레이니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은 협곡과, 만년설 산속에 눈들이 녹아 만든 커다란 폭포들과, 서브 알파인 메도우, 그리고 울창한 숲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약 25개 정도의 크고 작은 빙하들이 산주위를 에워싸고 있으며 특히 북동쪽 지역(상대적으로 태양빛이 적게 비추는 지역인)의 빙하들이 가장 커다란 면적과 깊이를 자랑하고 있다. 가장 두꺼운 층의 빙하는 약 1km 정도라고 하니 그 크기를 짐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빙하들이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붕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다.

레이니어 공원을 방문하는 입구는 3곳이 있는데 가장 손쉬운 길이 남쪽 출입구인 롱마이어 센터이다. 이곳에서 터를 잡고 생활하던 롱마이어 가족들의 이름을 본받아 지은 곳이다. 북쪽 입구는 쉐라이즈 센터이



며 동쪽 입구는 스티븐슨 캐년 입구이다. 북쪽과 동쪽은 겨울 시즌동안 도로가 통제되기도 한다.

레이니어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유명한 하이킹 트레일이 바로 ‘위더랜드 트레일’이다. 대략 95마일 정도인데 완주를 목표로 한다면 대략 8-10일 정도의 일정이 필요하다. 중간에 식품을 보급받아야 하기에 하이킹 일정 계획에는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트레일 선상에는 숲속에서 풍기는 피톤치드의 영향으로 대단한 산림욕을 느낄 수 있으며, 설산의 일부가 녹아 흘러내리는 7월경이면 서브 알파인 지대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야생화가 하이커들의 발걸음에 힘을 북돋우어 주며, 심지어는 수목한계선 위로 알파인 지대조차도 키가 5cm미만의 알파인 야생화들도 제 모습을 드러내고 활짝 웃고 있다.

레이니어에서 가장 유명한 트레일을 꼽으라면 당연히 롱마이어에서 파라다이스로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는 ‘파라다이스 트레일’과, 북쪽 입구에서 진입하여 만나게 되는 ‘선라이즈 트레일’이다. 두곳 모두 트

레일 루프로 형성되어 있고 트레일 중간기점에서 레이니어를 바라보면 거대한 빙하가 바로 눈 앞에 다가와 있다. 빙하와 눈이 녹아서 만들어진 빙하 폭포의 소리가 계곡의 청량한 공기를 타고 시원하게 들릴 뿐 아니라 빙하가 녹은 계곡 밑바닥의 녹푸른 빛 물결들의 영롱한 자태에 감탄이 절로 터져 나온다. 파라다이스 트레일 중간중간에는 그늘진 곳이 많아 한 여름에도 눈이 채다 녹지 않는다. 또한 트레일 곳곳에 이 산의 주인 노릇을 하는 마모트와 다람쥐, 그리고 산양과 야생 염소떼들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들과 함께 푸른색 날개를 지닌 블루제이 역시 레이니어의 주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이 산의 중간 부분에 눈 녹아 내린 물들이 자연스럽게 고여 만들어진 호수들이 있는데, 이 호수들은 롱마이어를 비롯해 근처의 작은 타운들에게 식수원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레이니어의 자태를 제대로 관측할 수 있는 시기는 1년중 불과 23개월 정도라 한다. 그것도 고산이기에 수시로 날씨가 변하고 구름이 산 정상부를 자주 삼키고 있어 운이 좋아야 전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트레일 선상에서 느끼는 공통적인 표현들은 이곳이야말로 ‘파라다이스 중의 파라다이스’라고 외치게 된다. 도심의 빌딩 숲을 빠져나와 몇시간만 허락하면 최고의 힐링 트레일을 만날 수 있다. 때문지 않은 순수한 모습 속에서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 창조주가 허락하신 이 귀한 땅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힐링의 세계로 들어간다.

| 윤성문 집사(여행전문가) |

■ 제3회 주안에놀러와

9월 운동회 앞두고 청·홍팀 종목별 시합

오는 9월 21일(토) 전교인 운동회를 앞두고 종목별 경기가 시작되었다. 창립 6주년 감사예배 후 벨리채플 체육관에서 청·홍팀간 농구, 탁구, 배드민턴 대회에서 막상막하의 명승부를 펼쳤다. 세 종목 중간결과는 홍팀(양 채플 홀수 목장들)이 300점으로 청팀(짝수 목장들)을 100점 차이로 앞섰다.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벨리채플/ 1부 오전 8:00, 2부 10:00
MP채플/ 1부 오전 10:00, 2부 오후 1:00

주중
예배

수요일예배/ 저녁 7:45 MP채플
금요일예배/ 저녁 7:30 벨리채플

새벽
예배

벨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MP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교육부 예배시간(교회학교)

벨리채플/ 주일 오전 10:00, 수 저녁 7:45
MP채플/ 주일 오전 11:30, 금 저녁 7:45

ICY중고등부&영어청년부

벨리채플/ 주일 오후 1:30, MP채플/ 주일 오전 10:00

Coram Deo(한어청년부)

벨리채플/ 주일 오전 10:00, MP채플/ 주일 오후 1:00

벨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MP채플 임시예배처소 MP Chapel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안에” 2019년 9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김신실, 나형철, 박경숙, 이광영, 이성은, 이예스터, 임용자, 임종구, 조 사이먼, 조용대(기자)

양영, 최호기(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

2019년부터는 주안에신문이 매달 초에 미리 발행됨을 알려드립니다.